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17호 2025년 1월 26일(다해)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2024.12.20. 모전동 본당>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모전동 본당 우리농 생활공동체

제1독서 느헤미야기 8,2-4,5-6,8-10

화답송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코린토 1서 12,12-3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1-4; 4,14-21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홍보·전산
오픈카톡

오늘날의 갈릴래아를 찾아

옥산 본당 주임
남정홍 스테파노 신부



인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산다는 것이 힘드시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풍요 속에 빈곤을 체험하며
각박하고, 허전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인 예루살렘에서 첫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변방인 갈릴래아를 택하여 설교하시며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갈릴래아는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경제적으로 대단히 천시받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어 사람들은 갈릴래아
사람을 ‘이민족들의 갈릴래아’라고 멸시하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경 부근에
있던 갈릴래아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등 외적의 침입이 많았고, 상권이 발달하여 교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 이민족들과의 접촉이 많아 다양한
인종이 살게 되고, 종교 또한 순수하지 못했던 곳이었기에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곳은 땅이 비옥하여 먹을거리와
물고기가 풍부하고, 자원이 많아 부요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는 사람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몇몇 기득권층의 지주들이 수탈해 갔기 때문에 가난하였고,
착취와 억압, 차별이 심해서 힘겹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억압의 땅, 고통의 땅, 시련의 땅, 슬픔과
울분 원망으로 가득찬 땅이었습니다.

이런 갈릴래아에 오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 봉독을
하시며 이사야 61,1-2의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해설해 주시며
마지막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라고 하시며 기쁜 소식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기득권자들에게는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선동으로 보여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고 해방의 출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래아를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오늘날의 갈릴래아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가난
한 이들, 눈먼 이들, 억압당하는 이들을 찾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 예수님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해방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새겨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겨워하고, 고통
스러워하는 오늘날의 갈릴래아인들을 찾아 이들에게 내가
느끼고 체험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도록
합니다. 아멘

모전동 본당 우리농 생활공동체(2024.12.20.)

표지 사진 설명

우리농생활공동체는 우리 농촌살리기운동에 함께 하는 각 본당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농촌 공동체와 교류 활동을 통해
하느님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생명 공동체 세상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전동 우리농생활공동체는 2009년 나눔터 문을 열고 지금까지 나눔터 봉사활동, 자급 퇴비 마련을 위한 가농소 입식운
동과 나눔활동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공동체인 솔티분회와 도농 결연을 통해 매년 풍년기원과 추수감사 미사에 함께
하고 감자 캐기, 양파 캐기 등 일손 돕기를 하고 있으며 활동가 연수, 물품 교육, 지구 살리기 생활 실천 활동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래떡, 찰떡 판매, 젊은 소비자들을 위해 볶은 참깨 판매, 버려지는 채소가 없도록 김치 만들
기 등 물품 나눔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미사 후 월례회를 하고 있으며 현재 조
영자 수산나(대표), 남기하 고마스, 김화순 율리아, 편은숙 프란치스카, 이옥녀 모니카 등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
(분회)-판매(우리농 매장)-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한실 교우촌 2 -샘물 같은 사람들-

정상동 본당 송규흠 아오스딩

나뭇가지들을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바람에 일렁인다.



바람은 기도 소리로 바뀌고 키만큼 야트막한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다. 가장 선량했던 그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대역 죄인이 되어 사람의

발길이 단지 않는 깊은 산속 우거진 골짜기에 움막을 지어놓고 숨어 살았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처음까지 시간을 거슬러 세월을 다 담아본다면,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형클어진 실타래를 양손 가득 우겨 쥐고 끝내 한 가닥도 풀어내지 못한 채, 작은 벌레의 꿈무늬에서 잠시 반짝였다 사라지는 반딧불 같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수풀 깊은 곳에서 하늘을 담고 끊임없이 솟아나 지친 나그네의 가슴을 적셔주는 샘물 같은 이들이 있다.

백화산 북쪽 능선이 아스라이 보이는 비탈, 두 개의 무덤 옆, 교우촌에 대한 유래를 안내하는 비석에는 1886년 병인박해 때 한실과 부근의 교우촌에서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이곳에서 잡혀가 순교한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서방', '또 다른 김서방', '장서방', '장서방의 아내' 이런 이름도 보인다.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혹은 인근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 이곳으로 들어와 결국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들인데, 무덤을 비롯하여 관련된 흔적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까지 복잡하고 지친 삶 속에서 신앙마저 마저 흔들리는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품고 있던 하늘을 오롯이 내어준다. 시든 일상에 생기를 넣어주고, 실타래 같이 엉킨 삶의 가닥을 하나하나 풀어주기도 한다.

그들은, 군주와 아버지 대신 천주를 섬기는 대역 죄인으로 삶을 마감한, 가난한 도피자가 아니라 죽어서야 영원히 살아있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이곳은 팔레 신부님께서 머물며 사목활동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가 한창일 때 푸른 눈의 이방인이 숨어 지내기는 이곳이 제격이었다. 복자 박상근 마티아와의 유명한 일화는 이곳 백화산과 한실 교우촌을 배경으로 한다. 이곳 교우촌을 뒤로 산 너머 마원 성지에는 십자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마치 이별한 연인처럼 손을 뻗어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팔레 신부님과 박상근 마티아의 조형물이 그들의 이야기를 아련히 떠오르게 한다.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평지 위 숲속 작은 공간에 굴삭기가 보인다. 그 옆에 작은 트럭이 하나. 이곳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신부님의 장비들이다.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길을 새로 만들고, 비탈을 평지로 다듬고 돌 하나하나를 얹혀 축대를 쌓았다. 입구 동네 사람들의 성지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숲이 우거진 산비탈이었던 이곳을 지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백 년도 더 넘은 지난날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시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에 숨이 차다. 한발 재거 디딜 때마다 가슴속에 들어 붙은 삶의 찌꺼기들이 가쁘게 뛰는 숨과 함께 내뿜어진다.

세례자 요한 4

함신부가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자고로 박혁거세가 자줏빛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나,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처럼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에는 전설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는 다른 이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동정

잉태에 대한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지요.

하느님께서 철저히 주도권을 쥐신 요한의 운명은 그의 탄생 이전에 이미 정해집니다. 즈카르야가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루카 1,13)

여성연합회 연수 및 총회

1월 18일(토) 교구청에서 여성연합회 <2025년 연수 및 총회>가 있었습니다. 81명이 참가하여 '영혼의 회복과 성장 이야기'(강사- 황영화 마티아 신부)라는 강의를 듣고 레크레이션과 성시간으로 채운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아름다운 자연과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받아들이는 맘으로 살아가기를 빕니다.

구역장 반장 교육

지 구	일 자	일 시	장 소
문경	2. 8(토)	13:30 ~ 17:00	점촌동 본당
상주	2. 15(토)		개운동 본당
안동·의성	2. 22(토)		교구청
북부	3. 8(토)	(접수- 13:00)	휴천동 본당
동해	3. 15(토)		영해 본당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격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셀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 054-571-2285, 054-572-0027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한국금거래소 상주점

골드바, 실버바 / 선물용 / 순금기념품
민을수있는순도, 최고가 고금매입
신속조 요안나
상주시 상산로 277
T.054-536-5000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찜&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 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 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엘리마리

빙수 전문점
(콩고물, 카스테라, 망고, 초코, 딸기빙수)
김유경 엘리사벳 010-2831-8273
매봉 4길 14 (대동타운 아파트 앞)

로이젠 안동점

신사정장, 자켓, 콤비, 셔츠, 구두외
(빅사이즈 상의 140, 하의 52인치)
안동 홈플러스 건너편
서정희 마리스텔라
T.054-855-5949

바오로딸 서원

안동시 서문동로 147
목성동 성당 입구
인터넷 서점- <http://www.pauline.or.kr>
T. 054-859-6040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1월 26일 박지훈 디모테오 신부
1월 28일 신동철 최상희 백동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1월 26일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정상업 바오로 신부
1월 28일 전장호 프란치스코 신부

교 구

수취폐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2. 7(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2025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대 상: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등록 기간: 2. 12(수)까지
등록금: 1인 50,000원(1년)
문 의: 사목국 성소담당(054-858-3115)

2025년 초등부 복사단 연수

일 시: 2. 15(토) 14:00~ 16(주일) 16:00
장 소: 농은수련원
대 상: 첫영성체를 한 후 복사단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
(2024학년 기준으로 6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

제 단 체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대 상: 자신과 위기 영혼의 영적돌봄을
원하시는 분
장 소: 교구청(새봄 CPE센터)
기 간: 3. 19(수)~ 6월 말(12주간)
매주 수요일, 12:30~ 18:00
교육비: 40만원(자부담 30 + 교구지원 10)
문 의: 황영화 신부(010-5119-1158)
한국CPE협회 홈페이지: www.kacpe.com

안동교구사회복지회 금성카리타스요양원

대 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주 소: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입소 문의: 054-832-6400

2월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 시: 2. 1(토) 10:30
장 소: 교구청 강당

수 도 회 · 피 정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 시: 3. 1(토)~ 3(월),
4. 10(목)~ 12(토),
5. 22(목)~ 24(토),
6. 19(목)~ 21(토),
11:00 입실, 17:00 마침
장 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강 사: 류 에프렘 수사
참가비: 2박 3일, 25만원
문 의: 010-6791-0071(문자)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기 타

안동신협 제52차 정기총회 안내

일 시: 2. 1(토) 14:00
장 소: 안동사청 대동관 낙동홀
문 의: 054-859-1710

노틀담 첫영성체 교리서 연수

일 자: 2. 10(화)
장 소: 대구대교구청 별관
신청 및 문의: 010-3829-7667
다음카페: '노틀담 첫영성체' 검색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유기농 100% 레몬착즙 판매

한 포에 100%이태리산 유기농 레몬이 하나
가 격: 1통 10,000원, 3통부터 한 통당 천원 할인!
주문전화: 010-8962-9600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시자율모집: 1. 15(수)~ 2. 28(금)
주간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바이오제약과, 글로벌뷰티케어과
주말반학과: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야간학과: 경영과, 사회복지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치매 심리정서 전문가 무료 교육

일 정: 2. 15(토), 22(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 제공)
내 용: 치매의 이해, 증상, 평가 및 예방,
치매환자 케어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식품가공 개발과정 무료 교육

일 정: 2. 15(토), 22(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 제공)
내 용: 식품 트렌드 분석, 간편가정식
(HMR)제품에 대한 이해 및 실습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산후관리사 취업연계

일 정: 3. 4(화)~ 4. 4(금) (총 23일 138시간)
시 간: 09:30~ 16:00 (월-금)/ 중식제공
대 상: 미취업자(취업가능자)
혜 택: 무료교육, 훈련수당 20만, 취업연계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8

천주교 안동교구 봉안경당

설날 연미사 안내

일 시: 1. 29(수) 11:00/ 15:00
장 소: 봉안경당
신 청: 당일 사무실 혹은 계좌입금
(농협 737-02-167722.
예금주 김도겸)
* 계좌입금은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문 의: 054-655-1781